



살랑이는 봄바람이 겨우내 잠들어 있던 마음을 깨웁니다. 다시 돌아온 봄, 학교는 새로운 시작에 발맞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모든 처음은 서툴고 두렵지만, 그만큼 눈부신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꿈을 향해 첫 발걸음을 내딛는 설렘부터 더 단단해질 나를 기대하는 다짐까지. 저마다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우리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기획·제작 | 키온 제작부 서지우(연극영화과 46기)
촬영 | 키온 제작부 손하율(미술과 46기)

출연 | 최봄, 김서하, 고소현, 김하은,
김제인, 김하음, 김휘준, 전예일

The Spring



The Spring

Q. 2026년은 스스로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봄 | 저는 올해 계원예고에서의 첫 해를 맞이했습니다. 타지에서 일반 중학교를 다니다가 예술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됐는데, 그래서인지 예고 입학이 설레는 한편 걱정스러웠어요. 하지만 학교에서 하는 모든 일에 즐거움을 느끼면서, 이전보다 깊이 음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쌓는 데 집중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도전을 통해 첼리스트로서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서하 | 저는 올해 수험생이 되었습니다. (웃음) 3학년이 되면서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니 바깥의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술을 전공해서 그런지 자연의 싱그러움이 더 크게 느껴지더라구요.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풀잎까지 하나하나 관찰하게 되었는데, 이런 과정이 실기 문제를 풀 때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도예과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남은 입시 기간 동안 학과와 실기 실력을 꾸준히 높여 1지망 대학교에 꼭 합격하고 싶습니다.



The Spring



Q. 신입생으로서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된 기억이나 경험이 있나요?

A. 예고 입시를 치르던 저의 모습이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되는 것 같아요. 연습이 잘 되지 않을 때나 들뜬 마음에 정신이 느슨해질 때면 어떤 생각으로 입시에 임했었나 떠올려보곤 합니다.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순수 연습만으로 12시간을 채우던 그때. 혹시나 내 음악에 다른 장르의 음악이 묻어날까봐 클래식과 CCM만 듣던 그때. 그때는 저에게 힘든 시간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행복을 느끼게 한 시간이기도 했는데요. 그때의 기억이 마음을 다잡는 원동력이 됩니다.

Department of Music

The Spring

Q. 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으로서는 어떤가요?

A.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겨울방학 때 신상호 작가의 전시에 큰 동기를 얻었습니다. 작품이 전체적으로 부피감이 있고 색깔도 뚜렷해서 인상 깊었어요. 무엇보다 작가의 생각으로 가득 찬 공간에 압도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전시를 본 후로, 언젠가 이렇게 큰 전시관에 내 작품을 선보이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죠.

저는 노래 듣는 걸 좋아하는데요. 입시가 끝난 뒤에 가고 싶은 공연들을 마음껏 즐길 생각이 저에게 또 다른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보사노바풍 노래에 빠져소한 해방감을 느끼고 있어요. 클래지콰이의 '날짜 변경선' 추천합니다.



Department of Art

The Spring



The Spring

Q. 2026년은 스스로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소현 | 저는 올해 새로운 전공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미술 전공으로 1학년을 보내다가 동양화란 세부 전공을 갖게 되었어요. 기대감도 두려움도 있지만, 2학년 생활을 알차게 보내고 싶다는 소망이 마음 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저에겐 방황하던 순간이 정말 많았는데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달성해 나가며,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고 끝까지 해낼 줄 아는 태도를 만들고 싶어요. 소박하더라도 꾸준히 이뤄낸다면 언젠가 제가 꿈꾸던 모습에 가까워질 거라 믿고 있습니다.

하은 | 저는 미국의 발레 스쿨에서 제안을 받고 유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년은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드는 해인데요. 익숙한 공간을 벗어나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만큼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기대가 큼니다.

올해 저는 스스로 한 단계 성장했다고 느낄 만한 결과를 만들고 싶어요. 단순히 잘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제 한계를 넘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목표예요.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면서도 제 색깔을 잃지 않고, 저만의 표현을 더 깊이 있게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The Spring



Q. 동양화 전공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사실 마음은 처음부터 동양화로 향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동양화 전공은 제가 지금까지 바라보던 방향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곧장 동양화를 선택하진 못했습니다.

그러다 1학년 때 전공심화 수업을 들으며 확신을 얻을 수 있었어요. 특히 붓으로 그리는 다양한 먹선과 특유의 담아한 색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동양화’를 그리며 느낀 즐거움에 부모님의 지지가 더해져 결심이 섰죠. 동양화 전공으로서 마주할 미래를 떠올려보자면,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The Spring

Q. 유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유학을 제안받은 발레 스쿨의 단체가 내한한 적이 있어요. 공연하기 전 몸풀기 수업이 진행되는데 감사하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죠. 단원들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며 함께 수업을 들은 경험이 굉장히 뜻깊었습니다. 단순히 공연을 관람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들의 에너지와 분위기를 직접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 후 공연을 보며 자연스럽게 나도 저 무대에 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 빨리 함께 호흡하며 공연하고 싶다는 목표가 더욱 확고해졌죠.



Department of Dance

The Spring

연극영화과 45기 | 김제인

무용과 47기 | 김하음

The Spring

Q. 2026년은 스스로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제인 | 저는 올해 방송부 'KABS'의 부장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이끌기보다는 뒤에서 팀을 지탱하는 역할이란 점에서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입시를 앞두고 개인적인 목표에도 집중해야 하지만, 방송부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습니다.

지난해 정기공연과 방송부 일을 함께 소화하며 2학년으로서의 부담을 실감했는데요. 후배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열린 선배가 되고 싶어요.

하음 | 저는 올해 학교 홍보대사 '키온'의 신입부원이 되었습니다. 발레를 하며 꾸준함과 성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워왔기 때문에, 그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키온 활동에 적극적으로 또 열심히 임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또 팀원들과 협력하며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더 더 성장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어요. 조금은 긴장도 되지만,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끝까지 책임감을 갖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웃음)



The Spring



Q. 방송부 부장을 맡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제가 후배로 활동하던 시절 선배님들과 선생님께 받았던 따뜻함을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먼저 다가와 세심하게 챙겨주신 덕분에 방송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방송부에 대한 애정도 커졌거든요. 그때의 도움과 배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부장을 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그 역할을 이어가고 싶어요. 방송부가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묵묵히 응원하고 지지할 겁니다. 제가 느낀 그 따뜻한 분위기가 후배들에게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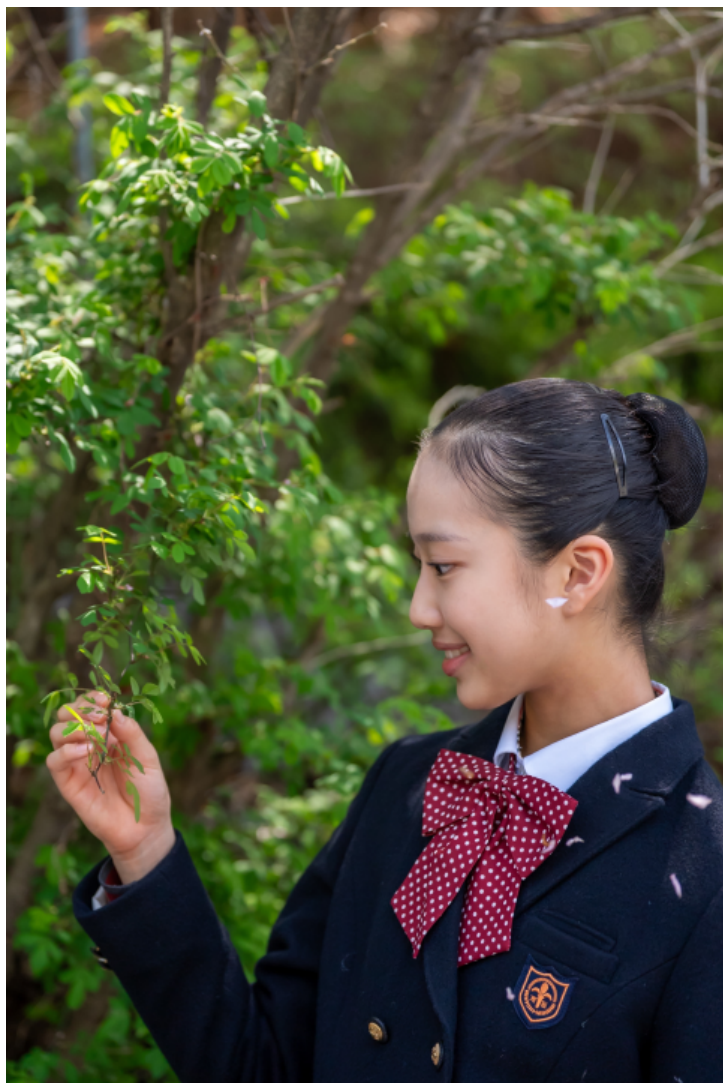
Department of Drama&Film

The Spring

Q. 학교 홍보대사에 지원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입학 전 키온을 통해 학교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단순한 정보뿐만 아니라 학교의 분위기와 활동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계원에 숭고등학교에 관심이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 키온의 일원이 되었으니, 앞으로는 제가 직접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진솔하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우리 학교의 매력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콘텐츠를 만들고, 학교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Department of Dance

The Spring



The Spring

Q. 2026년은 스스로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휘준 | 저는 올해 학생자치회 회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생각만 해도 설레고 들뜨는 자리 인데요. 개성 강한 학생들이 모인 우리 학교에서 대표를 맡다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에너지가 솟는 기분이에요.

제 모토는 ‘벽 없는 학생회’예요. 많은 학생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학생자치회 인스타그램 계정을 활용해 온라인 건의함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학생 여러분이 느끼는 학생회에 대한 벽을 낮추고, 항상 곁에 있는 학생자치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예일 | 저는 올해 찬양 인도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자리에 오르게 되어 정말 감사하면서 나에게 과분한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책임감과 동시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는데요. 학생들의 찬양을 이끄는 것을 넘어 모두가 하나 되는 예배를 만들고 싶습니다! 나아가 음악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고요, 저를 보고 후배들이 인도자라는 자리에 관심을 갖게 되면 좋겠습니다.



The Spring



Q. 학생자치회 회장을 맡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계원예고 입시를 준비할 때부터 꿈이 하나 있었는데요. 합격하면 꼭 학생자치회 회장이 되어야지, 하는 다짐이었습시다. 학교에 내 이름 석 자를 확실히 남겨야겠다는 야심을 늘 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되고 나니 어깨가 무겁네요. (웃음)

이왕 하는 거, 제대로 즐겨볼 생각입니다. 제가 즐거워야 학교도 즐거워질 수 있잖아요! 어떤 문제든 유쾌하게 풀어가고 싶어요. 처음의 간절함을 잊지 않고, 제 진심이 닿을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 잘 부탁드립니다.

The Spring

Q. 찬양 인도자를 맡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선배님들이 너무 멋있었어요. 매주 목요일 예배 시간마다 그 큰 무대에 오르는데, 수많은 학생들 앞에서도 떨지 않고 찬양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찬양 연습을 멋지게 이끌어주기도 했고요. 제게 부족한 점이 있어도 따뜻하게 격려해주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도 꼭 저 무대에 서서 찬양을 이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꼭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예배 시간만큼은 모두 신나게 예배 드리는, 찬양의 즐거움을 많은 학생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Department of Music



계원예술고등학교
KAYWON HIGH SCHOOL OF ARTS